광주시, 감염고위험시설 방역 조치 완화

고위험 5종 영업금지 해제…판매 홍보관은 유지
집합제한시설 내 영업시간 등 방역수칙 일부완화
연휴 닷새간 지역 감염 0명…확산 추이 등 고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 집합제한으로 기준 완화>

시설명	조치내용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집합제한(2020. 10. 5.(월) 0시 ~ 10. 11.(일) 24시) ▸영업시간 제한 없음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10월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시간·인원제한 집합제한시설 → 방역수칙 완화>

시설명		현재	변경
시간제한	노래연습장	▸01~05시 영업금지	▸01~05시 영업허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01~05시 영업금지	▸01~05시 영업허용
	목욕탕·사우나	▸01~05시 영업금지	▸01~05시 영업허용
인원제한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10인 이상 집합금지	▸50인 이상 집합금지
	멀티방·DVD방	▸실별 3인 이하	▸인원제한 삭제

광주시가 추석 연휴 중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감염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석특별방역대책'으로 일주일간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 5개 업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며, 일부 집합제한시설에 부과됐던 방역 의무도 경감된다.

광주시는 5일부터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11일 자정까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집합제한' 시설로 관리된다.

영업시간 관련 제한도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시설'로 지정 관리된다.

일부 집합제한시설도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당초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는 오는 5일부터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내 집단운동은 집합 제한인원이 '1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각 공간당 3인 이하로 입장이 제한됐던 멀티방·DVD방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풀린다.

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이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 가능한 점,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추석 명절 연휴 닷새간 해외유입 확진자 1명만 발생, 지역감염 확진자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지역감염 확산 여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준 시민 덕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이동과 접촉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시의 방역 조치 완화 결정에도, 정부가 정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는 2단계 거리 두기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또 집합제한시설 38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자명부·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며,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무관중 스포츠경기, 공공시설 운영제한 등의 조치도 유효하다.

기동취재본부

추석 연휴, 광주·전남 사건사고 잇따라

무면허 렌터카 사고 사건·지인-가족 대상 흉악범죄 잇단 발생

추석 연휴 동안 광주·전남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4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순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특법상 치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렌터카를 빌렸으며,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경찰은 헤어진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B(51)씨도 입건했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50분께 화순군 화순읍 모 주택에서 동거녀의 친 여동생 2명과 동생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신체 일부를 5차례 찔린 여동생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B씨의 범행을 말리다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헤어진 동거녀와 주택 매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휴 첫날 순천에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C(7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42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내 자택에서 아내(71)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C씨는 평소 갈등이 깊던 아내와 말다툼 도중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범행 직후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모두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C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각종 사고와 화재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일 오전 0시19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D(41)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오후 3시22분께 구례군 산동면 구만저수지 인근 전신주 전선에 패러글라이더가 걸렸다.

이 사고로 체험객 D(33)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낙하산에 탔던 교관은 전신주에 걸려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비행 중 전선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100억원대 불법대출 농협 직원, 감정평가사 등 4명 적발

충북 영동군의 한 농협 직원이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농협 대부계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동산 감정가를 시세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짓 감정한 감정평가사 B씨와 자금을 대출 받은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농협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상가나 모텔, 나대지, 임야 등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동산을 담보로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C씨 등에게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동산을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수익방식을 적용해 평가하거나 임야를 논이나 답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거짓 감정하는 수법으로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금 대출을 대가로 B씨 등과 공모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금융 계좌를 추적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감정평가사의 허위 감정에 속아 대출을 실행 했다"며 공모 여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홍천서 SUV 차량 터널 앞에서 전도…1명 중상, 5명 경상

강원 홍천서 SUV 차량이 터널 앞에서 전도돼 6명이 다쳤다.

지난 3일 오후 6시4분께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지르매재터널 앞에서 SUV 차량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탑승자 A(62·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탑승자 5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구서 버섯 따러 간 70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강원 양구에서 버섯을 따러 갔다 실종된 70대 노인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오후 2시23분께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의 한 야산에서 A(74)씨가 8부능선 10m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구소방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일 버섯을 따러 산에 들어갔다 돌아오지 않자 A씨의 아들이 이날 오후 9시36분께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이틀 뒤인 3일 수색에 참여했던 방산면 의용소방대에 의해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절벽 밑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천 도심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수입차서 불

3일 오후 5시43분께 충북 제천시 천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수입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차량 화재는 엔진룸에서 시작됐으며 화재 당시 승차자는 없었다고 제천소방서는 밝혔다.

출동 20여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한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차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 달성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전기차 전소

4일 오전 2시47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봉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전기차 1대가 전소돼 323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17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